



07-21 (통권 252호)

200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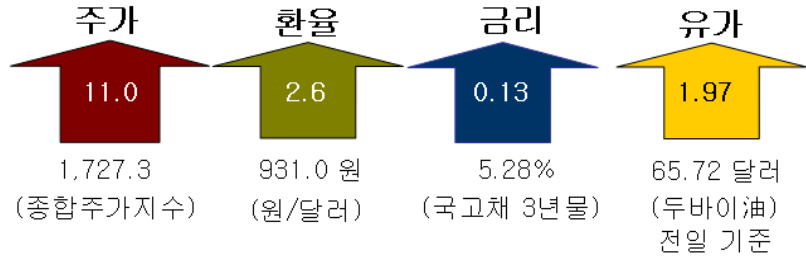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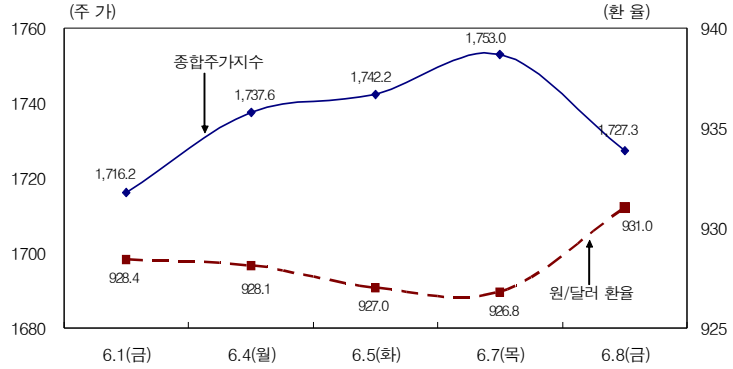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설비투자 행태의 한·일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6.1~6.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설비투자 행태의 한·일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간 경제 동향	24
□ 실물 부문 : 5월 수출 경기 호조 지속	24
□ 금융 부문 : 국채 금리 급등	2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거시경제실   :   한 상 곤 연 구 위 원   (3669-4120, sghan4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설비투자 행태의 한-일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1. 한국의 설비투자 추이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설비투자가 20%에 달하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 1995년의 경우에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8.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경제성장률도 9.3%를 달성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의 설비투자는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설비투자 증가세는 1990년대 중반까지와 같이 힘있게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경기 순환에 따라 작은 폭의 등락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장기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와는 반대로 최근 일본은 설비투자가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은 지난 2003년부터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비제조업 및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어 동 분야에서 설비투자 확대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설비투자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 2. 한-일간 설비투자의 특성 비교

**(거시 경제 측면 : 한-일간 설비투자 비중 역전)** 한국은 설비투자의 대GDP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전 GDP의 14%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최근에는 GDP의 9%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GDP의 9~11%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설비투자 비중은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05년에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산업 구조 측면 : IT-비IT 설비투자의 한-일간 편차 심화)** IT와 비IT 산업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한국은 지난 90년대 이후 IT산업의 편중성이 심화되어 온 반면, 일본은 고른 분포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설비투자는 IT산업이 60~80%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IT,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의 4개 부문 비교) 반면, 일본 제조업체들은 2005년 현재 IT 20%, 자동차 40%, 화학 및 기계 각 20% 내외로 주요 산업별로 고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설비투자는 IT 경기의 부침에 과도하게 민감한 불균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산업별 설비투자가 편중된 것은 우리의 전통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설비투자 수요를 창출시키는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본은 자동차 업체들의 신형차 생산체제 구축, 석유화학 업체들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수지 분야 설비능력 확대 등에 힘입어 IT 경기와 상관없이 설비투자의 기복 없는 증

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기업 경영 측면 : R&D 투자에 대한 인식 차이 상존)**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R&D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일본기업들과는 반대로 연구개발보다는 신제품 개발 측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경기 침체시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크게 줄이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경기 여건에 관계없이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특히 2000년대 들면서, 한국은 신제품 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연구개발 투자를 줄여왔으나, 일본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투자가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단기적인 차원의 매출 제고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일본은 단기 매출과 장기 성장 동력간에 균형있는 자원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 3. 정책적 시사점

**(문제점)** 첫째,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 투자가 취약하다. 한-일간 설비투자의 대GDP 비중 역전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한국의 설비투자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또한, 구조 측면에서도 한국은 장기적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단기적 차원의 신제품 개발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과도한 IT 산업 의존도로 인하여 세계 IT 경기침체 등 외부 변수에 대하여 취약할 수밖에 없다. 셋째, 연구개발 투자 스톡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연구개발 투자 스톡의 형성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에 무게를 두는 R&D 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나, 이것은 다시 연구개발 투자 스톡의 부족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시사점)** 이와 같이 한국의 설비투자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경제 및 산업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한-일간의 대GDP 설비투자 비중 역전 현상은 일본의 투자 활성화보다는 한국의 투자 부진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투자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 기업규제의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IT, 서비스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의 설비투자 유발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 단계가 높아질수록 연구개발 등 질적 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설비투자의 내생성이 증대하게 되는데,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하여 설비투자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를 늘려서 연구개발 스톡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셋째,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효과적인 수단인 세액 공제 확대, 정부-민간 매칭펀드 조성 등 조세 및 재정 지원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 설비투자 행태의 한-일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 설비투자의 경기 회복 주도 능력 약화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 경기를 주도하기 보다는 경기 상황에 따라 소폭으로 등락

### 한-일간 설비투자 특성 비교

- 거시경제 측면 : 한-일간 설비투자의 대GDP 비중 역전
- 산업구조 측면 : IT-비IT간 설비투자의 한일간 편차 심화
- 기업경영 측면 : R&D 투자에 대한 인식 차이 상존

### 한국 설비투자의 문제점

장기성장 잠재력 투자 취약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연구개발 투자 스톱 부족의 악순환 지속

### 정책적 시사점

기업의 투자 활력 제고

비IT, 서비스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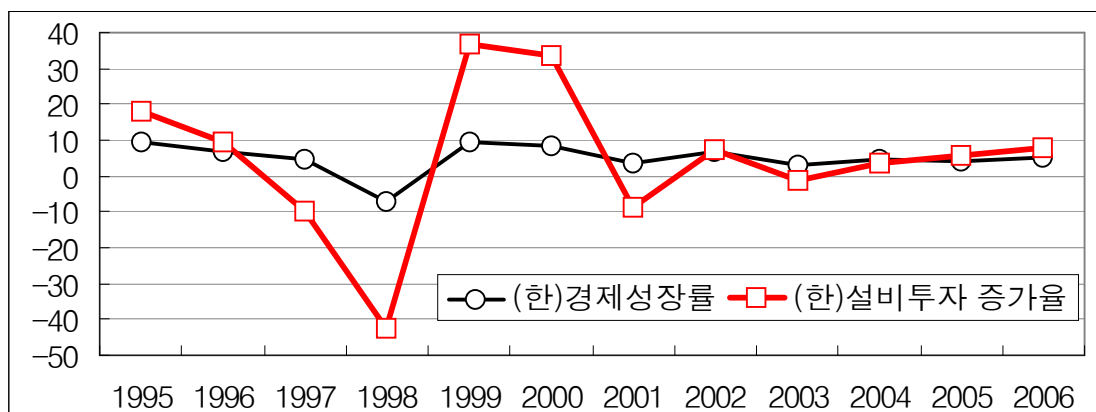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1. 한국의 설비투자 추이

-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20%에 달하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음
  - 1995년의 경우에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8.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경제성장률도 9.3%를 달성
-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의 설비투자는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6~2000년까지의 기간이 외환위기인 점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설비투자의 부진은 소비 위축 - 설비투자 부진 - 신규일자리 창출 미흡 및 가계의 가처분소득 정체로 이어지는 내수부진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최근 들어서 수출 호조와 내수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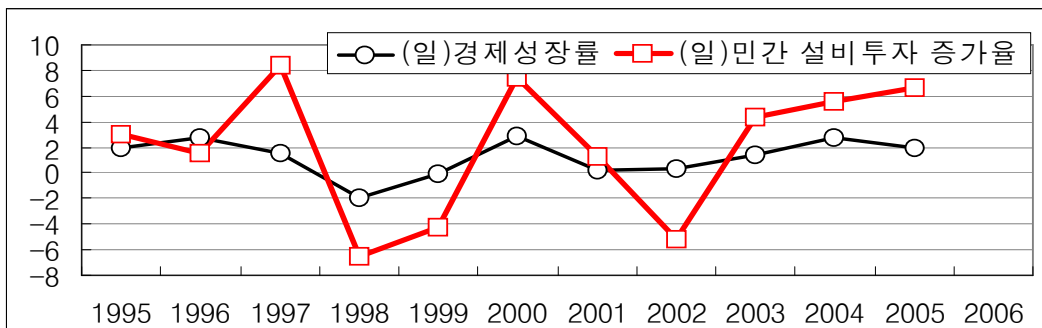
- 예전에 비하면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건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 경기 회복을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최근 일본의 설비투자가 건조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인 양상임

- 일본은 지난 2003년부터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 최근에는 설비투자 회복세가 비제조업 및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sup>1)</sup>
- 특히, 2006년 들어서는 대기업 설비투자가 다소 감속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 부문에서 설비투자 확대 추세를 주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제성장률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



자료 : 일본 내각부.

- 한국은 지금과 같은 설비투자 증가세의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가의 장기 성장잠재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음

- 설비투자는 당장의 경기 회복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의 설비투자 증가세는 1990년대 중반까지와 같이

1) 최근의 일본 설비투자 호조 지속의 배경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2007-18호 참조

힘있게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경기 순환에 따라 작은 폭의 등락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설비투자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세부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근본적 문제점을 점검함

## 2. 한-일간 설비투자의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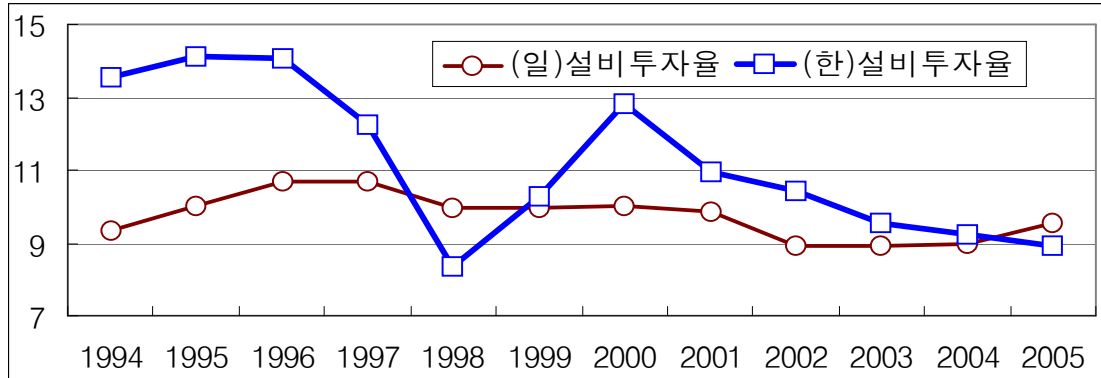
### ○ 거시 경제 측면 : 한-일간 설비투자 비중 역전

- 한국은 설비투자의 대GDP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전 GDP의 14%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최근에는 GDP의 9% 수준에 불과함
- 반면 일본의 설비투자는 GDP의 9~11%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와 성장률 차이를 감안할 때 한국의 설비투자는 일본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한국과 일본의 설비투자 비중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05년에는 역전되었음
-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일본에 비해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높게 유지되어 왔으나,
- 2000년 이후로 한일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05년에는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함



< 대GDP 설비투자 비중의 한일간 비교 >

(%)



주: 대GDP 설비투자 비중 = (명목설비투자/명목GDP)×100 으로 산출

-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으로 빠질 위기에 처해 있음

- 한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4~5%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6%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가능함<sup>2)</sup>
- 설비투자는 자본스톡의 규모를 증대시켜 경제의 생산능력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설비투자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짐

○ 산업 구조 측면 : IT-비IT 설비투자의 한일 간 편차 심화<sup>3)</sup>

- IT와 비IT 산업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한국은 지난 90년대 이후 IT산업의 편중성이 심화되어온 반면, 일본은 고른 분포가 유지되고 있음<sup>4)</sup>
- 산업별 설비투자 비중에서 한국은 IT산업이 60~80%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본은 주요 산업이 고른 비중을 차지하여 산업간 포트폴리오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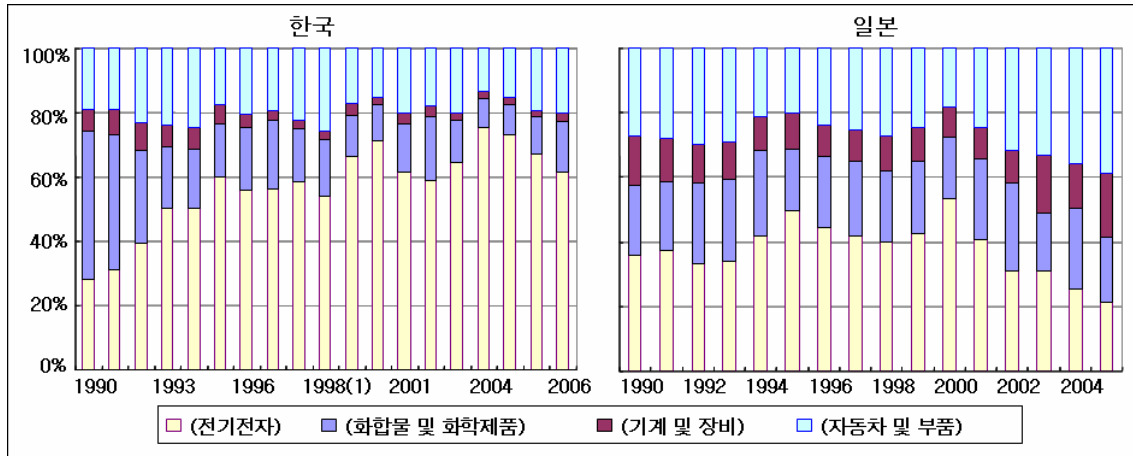
2) 현대경제연구원,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2007.03.23

3) 한국은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 일본은 내각부 법인통계조사에 기반

4) IT 산업은 제조업 중 반도체, 가전, 산업용 전자, 통신기기 및 영상음향기기 등 전기전자 산업을 의미함

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조업의 부문별 설비투자 비중의 한일간 비교 >



- 이와 같이 한국의 산업별 설비투자가 편중된 것은

-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IT 산업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데다가
- 우리의 전통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은 국내투자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 새로운 설비투자 수요를 창출시키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IT산업의 부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2001~2006년 중 연평균 11.8%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활기찬 모습이나,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7.4%, 8.5%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 이는 최근 들어 전기전자부문의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2005년 -3.6%, 2006년 -2.2%)을 기록한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 화학물 및 화학제품<sup>5)</sup> 등의 설비투자는 최근 들어 호조를 보이고

5)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화학, 정유, 조선, 자동차 등은 신규진입이나 기존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인 장

있으나<sup>6)</sup>, 여전히 비중은 미약한 실정임

- 반면, 일본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는 주요 산업별로 고른 비중을 보이며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2003~2005년 중 연평균 17.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비제조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 부문별로는 IT부문 비중은 2000년 30%에서 2005년 20%로 하락한 반면, 자동차 부문 40%, 화학 및 기계 부문 합계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IT 부문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체들의 신형차 생산체제 구축, 석유화학 업체들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수지 분야 설비 능력 확대 등에 힘입어 일본의 설비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

○ 기업 경영 측면 : R&D 투자의 인식 차이 상존<sup>7)</sup>

-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R&D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 패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첫째, 한국 기업들은 연구개발보다는 신제품개발 측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반대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둘째, 한국 기업들은 경기 침체시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경기 여건에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0년대 들면서, 한국은 신제품 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연구개발 투자를 줄여왔으나,
  - 일본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투자가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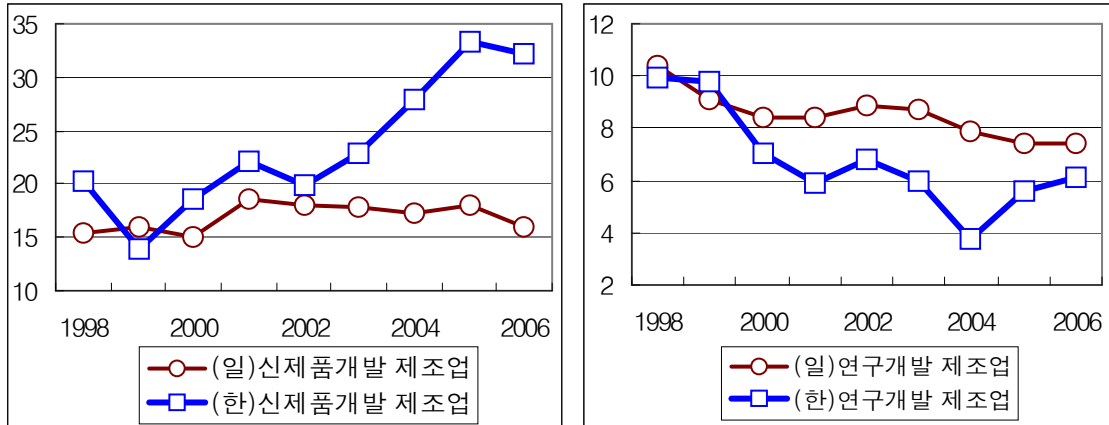
치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설비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임(산은 경제연구소, 산은조사월보(2007.4))

6) 2004~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자동차 25.7%,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7) 한국은 산업은행, 일본은 정책투자은행의 설비투자계획 조사에 기반

< 제조업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의 한일간 비교 >

(%)



- 이와 같은 R&D 투자 행태는 기업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 한국은 신제품 개발 투자 위주의 행태로서 이는 단기적 차원의 매출 제고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며,
- 일본은 연구개발 투자도 소홀히 하지않으므로 해서 단기 매출과 장기 성장 동력간에 균형있는 자원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R&D 투자행태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신제품 개발 투자는 1~2년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지만,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 양자간 균형있는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한국 기업들이 신제품개발 투자에 비중을 두는 배경에는 연구개발 투자가 가지는 속성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개발 투자는 신제품개발 투자에 비하여 회임기간이 훨씬 길뿐더러,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스톡이 누적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 우리나라는 충분한 연구개발 스톡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는 효과가 크지 않은 상태임

### 3. 정책적 시사점

#### ○ 문제점

- 첫째,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 투자가 취약함
  - 설비투자의 대GDP 비중의 한-일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05년에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으며
  - 설비투자의 구조 측면에서도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신제품개발 투자에 주력하여
  - 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임
- 둘째,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 설비투자의 비중이 60~80%에 달할 정도로 IT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 구조로 인하여,
  - 한국경제는 세계 IT경기침체 등 외부 변수에 대하여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셋째, 연구개발 투자 스톱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한국 경제는 연구개발 투자 스톱의 형성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에 무게를 두는 R&D 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
  - 이는 다시 연구개발 투자 스톱의 부족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가져옴

#### ○ 시사점

- 첫째, 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해나가야 함
  - 한-일간의 대GDP 설비투자 비중 역전 현상은 일본의 투자 활성화보다는 한국의 투자 부진에 기인한 측면이 큼
  - 이는 지난 10여년간 지속되어온 對기업 규제 강화, 반기업 정서 확산, 노

측 중심의 노사 정책 지속 등에 의한 것임

-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내수 침체 및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투자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 출중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 기업규제의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비IT,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하여 민간 설비투자의 촉진이 필요함**

- 경제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투자 등 질적 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설비투자의 내생성이 증대하게 되는데,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 설비투자의 외부 의존도가 높음
- 따라서 기초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를 늘려서 연구개발 스톡을 확충해나가야 함
- 특히, 부문별로는 IT보다는 비IT 제조업 분야에 치중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함

**- 셋째,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함**

- 국가의 연구개발 스톡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이 스스로 신제품 개발 투자를 축소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
- 따라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효과적인 수단인 세액 공제 확대<sup>8)</sup>, 정부-민간 매칭펀드 조성 등 조세 및 재정 지원정책을 펼쳐나가야 함

한상곤 연구위원 (sgghan49@hri.co.kr, 3669-4120)

8) 세액공제가 연구개발에 미치는 탄력성의 크기는 대기업 0.306, 중소기업 0.135로 세액공제가 연구개발 투자 유인의 중요한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음(조세연구원, 2006)

별첨 : 한국과 일본의 설비투자 비교

1) 기업규모별 산업별 설비투자<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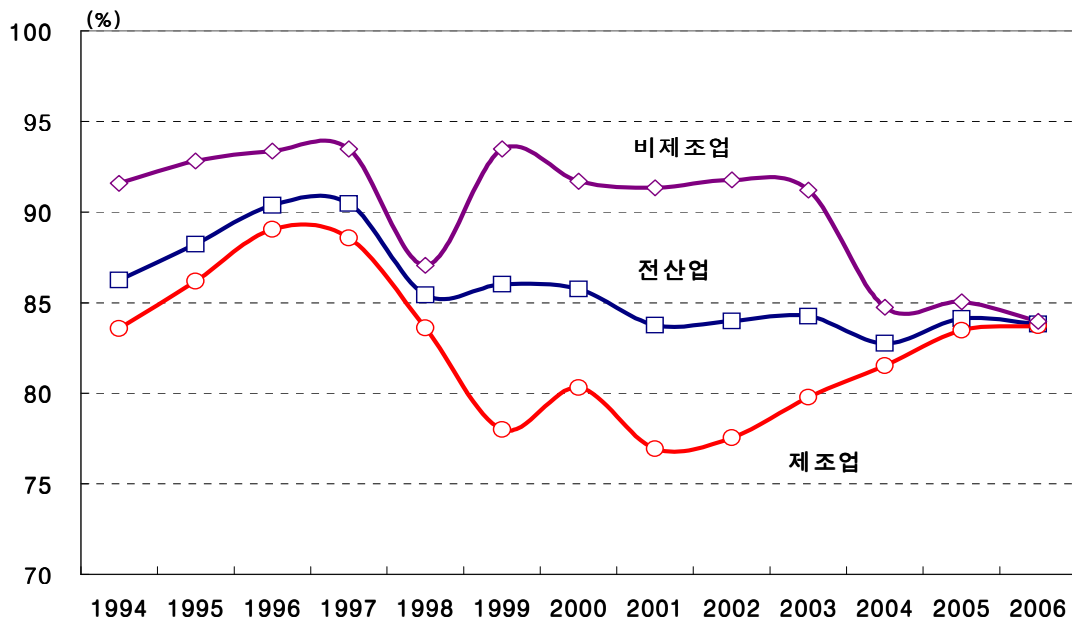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비중

- (한국) 외환위기를 앞두고 국내 대규모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비중 면에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점진적으로 감소함

·그러나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의 대규모기업 비중은 수출호조로 인하여 2002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비제조업부문의 대규모기업 비중은 전기가스 및 증기업, 통신업 등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2000년 이후로 완만한 감소추세를 나타냄<sup>10)</sup>

< 표본대상 기업 중 대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비중(한국) >



9) 한국은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 일본은 내각부 법인통계조사에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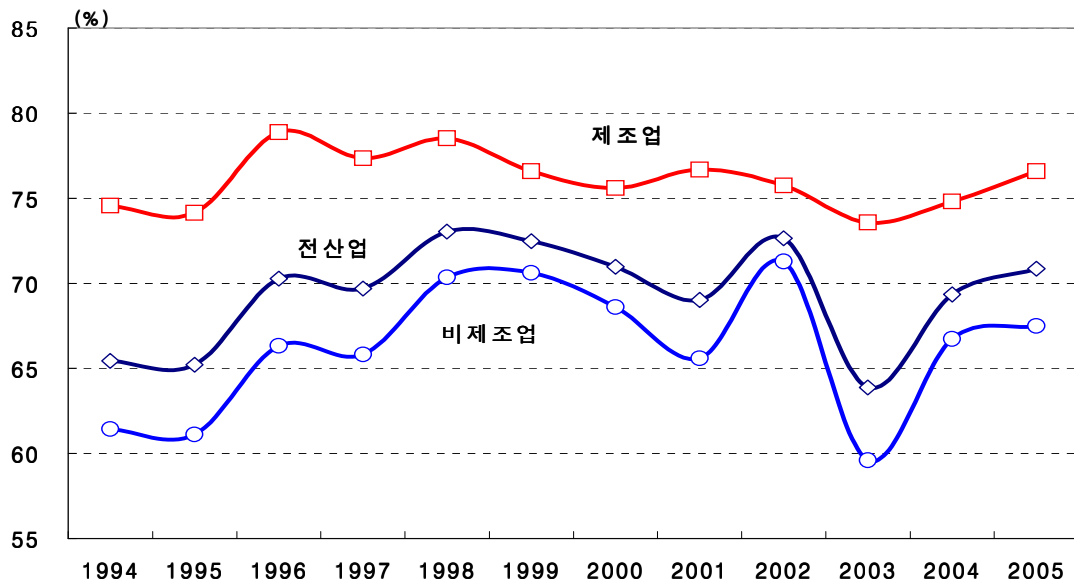
10) 1998년과 2004년은 표본개편이 이루어진 해로 해당연도에 큰 폭의 비중변화가 있었던 것은 표본개편의 영향도 상당부분 있었다고 봄

- (일본) 제조업 대규모 기업들의 설비투자 비중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되었으나 2003년 이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이는 대규모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일본의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제조업 부문 대규모 기업들의 2003~2005년 중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7.1%, 34.1%, 10.5%를 나타내어 설비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음

< 대규모기업의 설비투자 비중(일본) >



○ 제조업과 비제조업 설비투자 비중

- 외환위기 이후 국내 제조업부문의 설비투자 비중은 전반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sup>11)</sup> 일본 제조업부문의 설비투자 비중도 일본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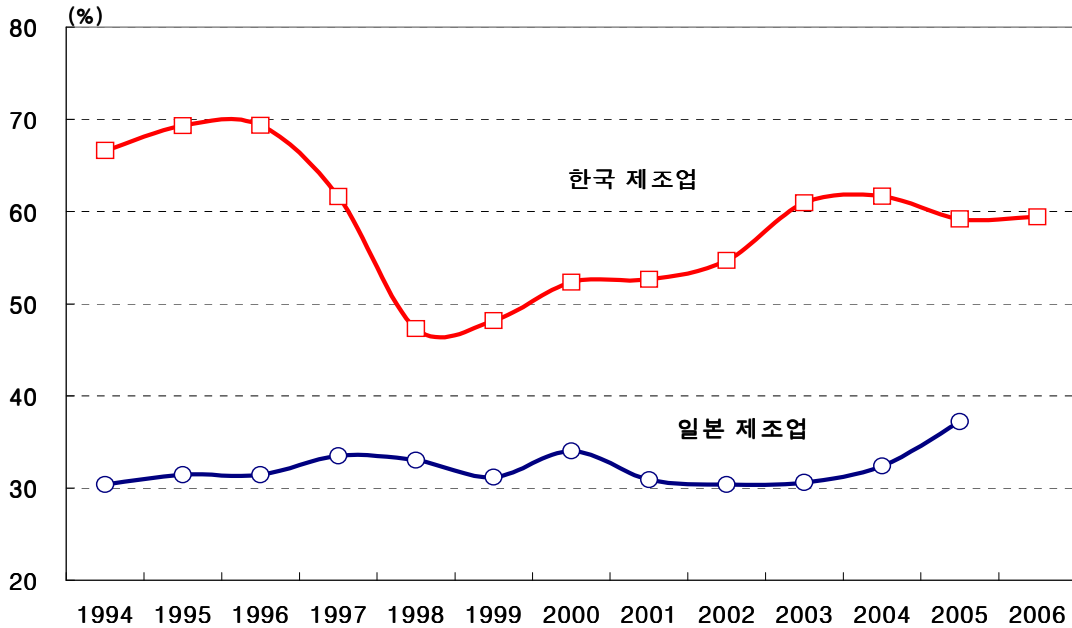
·국내 제조업 부문의 전체 설비투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대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데에 기인

11) 한국과 일본의 설비투자 통계수치는 각각 다른 방식에 의한 표본집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추세비교 이외의 양국 간 직접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하여 1998년의 47.3%에서 2006년 59.4%까지 늘어남  
 ·일본 제조업 부문의 전체 설비투자 비중도 2002년 30.4%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37.2%로 늘어남

<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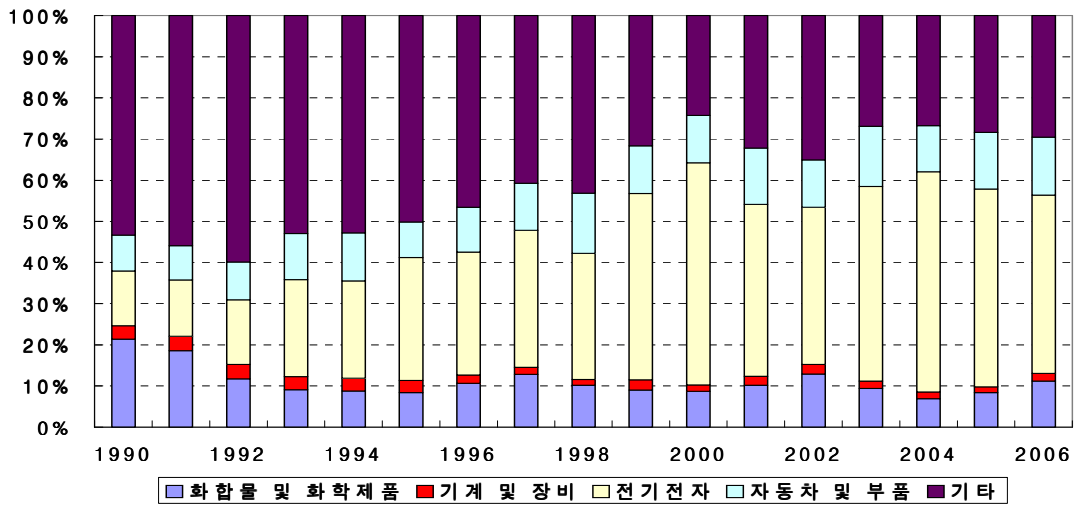
- (한국 제조업) 한국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는 2001~2006년 중 연평균 11.8%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과 2006년 각각 7.4%, 8.5%를 기록하여 증가율 면에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띄고 있음

·이는 최근 들어 IT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전기전자부문의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2005년 -3.6%, 2006년 -2.2%)을 기록한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한편 국내시장에서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자동차,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의 설비투자 비중도 최근의 설비투자 호조<sup>12)</sup>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2) 2004~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자동차 25.7%,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 제조업내의 부문별 설비투자 비중(한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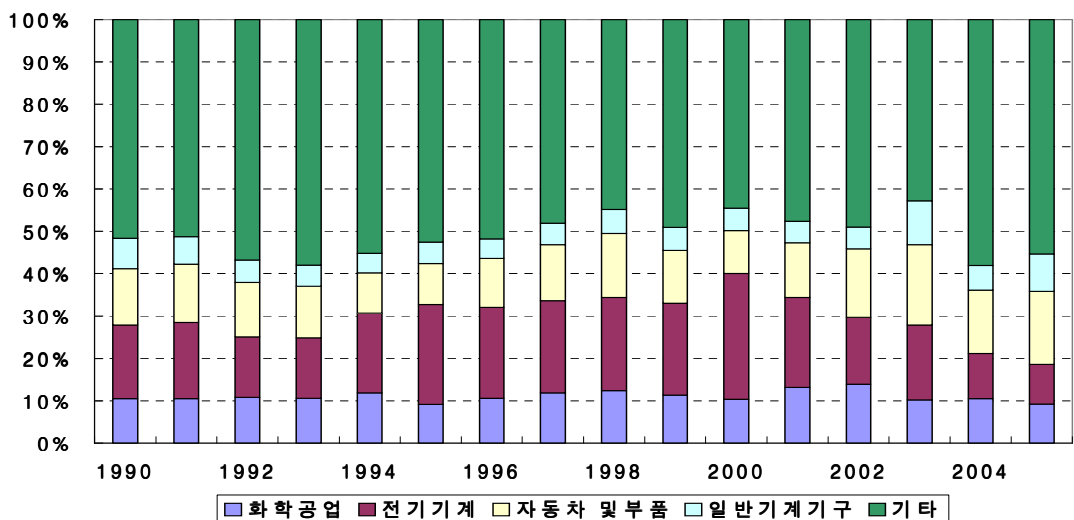


- (일본 제조업) 일본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는 2003~2005년 중 연평균 17.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비제조업체들에 비해 활발한 양상임

·제조업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 부문 설비투자의 30%(2000년 기준)를 차지하던 전기기계기구업의 설비투자 비중이 2000년 이후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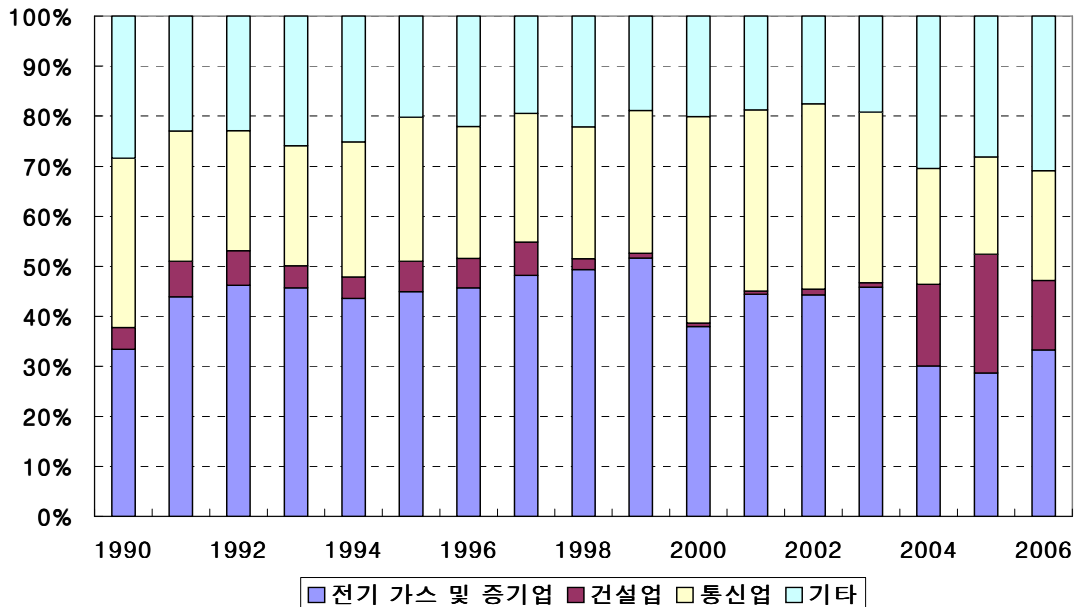
·자동차 업체들의 신형차 생산체제 구축, 석유화학 업체들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수지분야 설비능력 확대 등에 힘입어 자동차부속품 제조업과 화학공업의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제조업내의 부문별 설비투자 비중(일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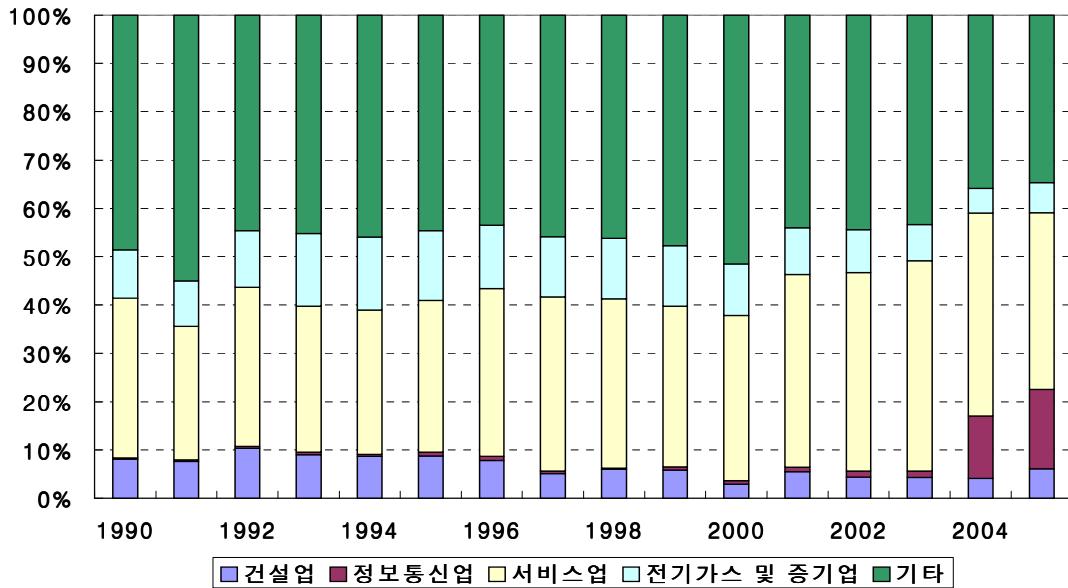
- (한국 비제조업) 한국 비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는 2001~2006년 중 연평균 1.5%증가에 머물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들에 비해 내수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IT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국내 비제조업 설비투자를 주도했던 통신업의 설비투자 비중은 2000년 41.3%를 기록한 이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 현재 21.9%에 머무름

< 비제조업내의 부문별 설비투자 비중(한국) >



- (일본 비제조업) 일본 비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3~2005년 중 연평균 6.3%에 머물러 제조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비제조업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전기가스 및 증기업, 건설업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함
  - 정보통신업의 경우 제3세대 휴대전화, 광통신망 및 지방방송국의 지상파 디지털화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비제조업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의 1.3%에서 2005년 16.4%로 급증함

< 비제조업내의 부문별 설비투자 비중(일본) >



2) 투자동기별 설비투자<sup>13)</sup>

○ 전산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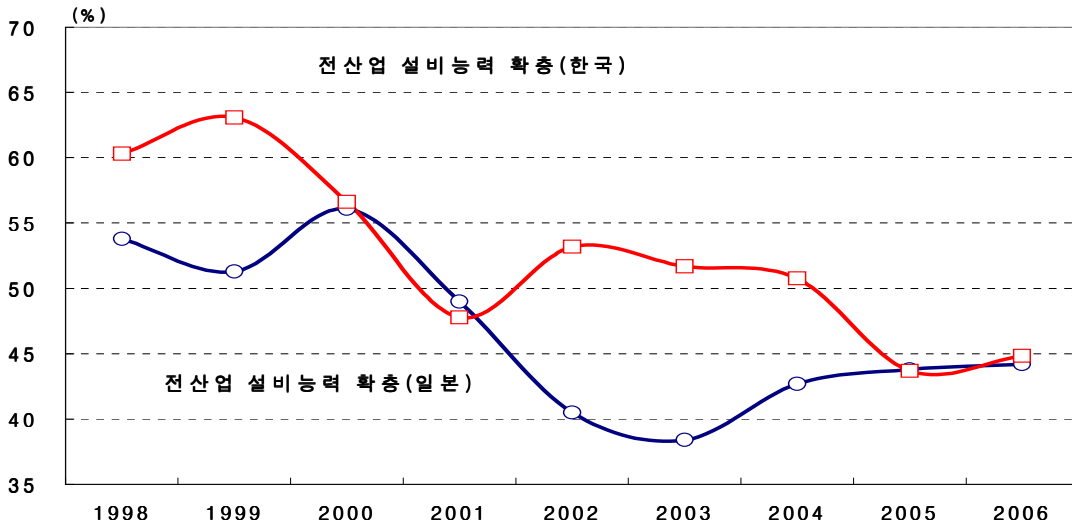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양국의 설비능력의 증가를 위한 투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나 최근 일본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일본기업들의 설비능력 증가를 위한 투자의 비중은 다시 증가세로 반전

·2003년 이후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본기업들의 설비투자는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장기불황기간 중의 투자부진으로 설비가 노후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설비능력의 증가를 위한 투자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임

·반면 한국에서는 철강, 석유정제업 등 자본집약적 장치산업들의 국내에서의 투자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비능력의 확충을 위한 투자의 비중은 전반적인 하향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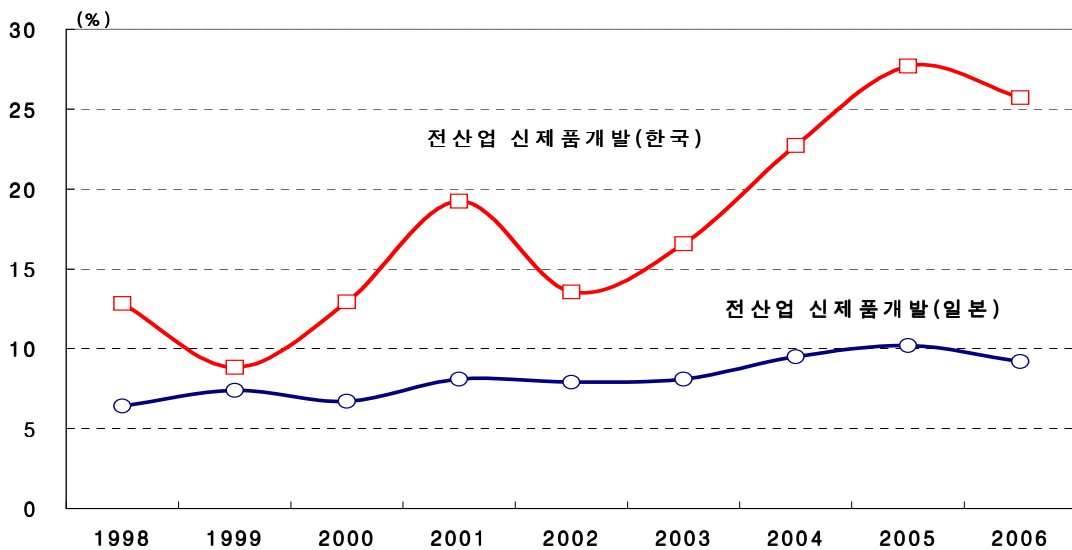
13) 한국은 산업은행, 일본은 정책투자은행의 설비투자계획 조사에 기반

< 전산업 설비능력의 증가 >



- 전기전자, 자동차 등 가공조립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일본업체들에 비해 한국업체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은 기존 설비능력의 확충보다는 신제품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어옴
- 반면 일본기업들은 기존설비능력의 확충과 유지보수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투자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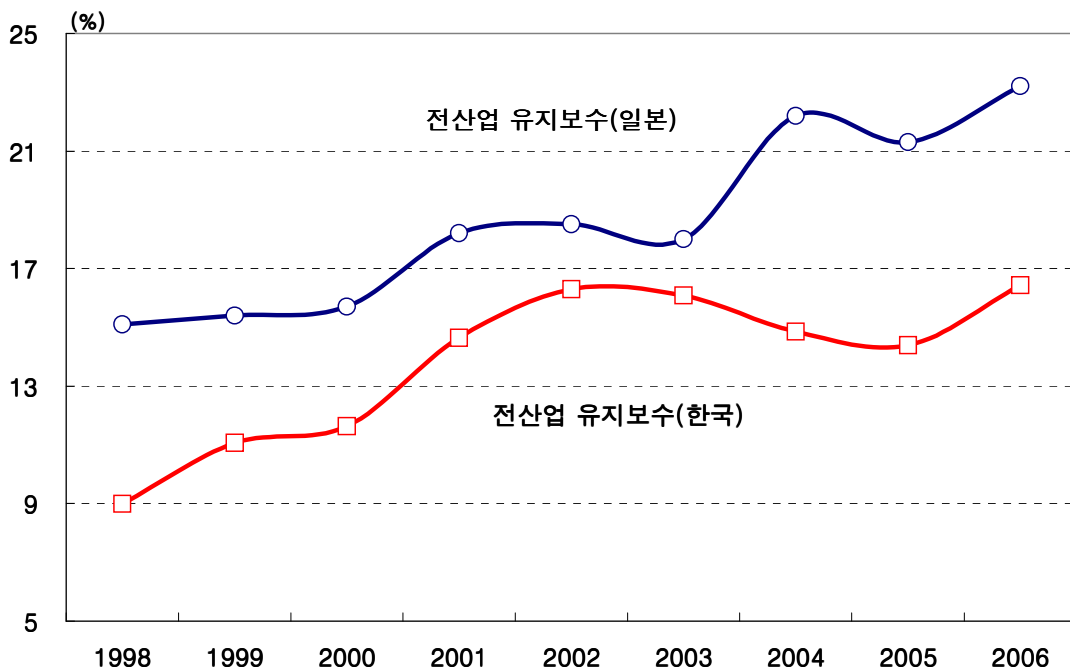
< 전산업 신제품 개발 >



- 현재 합리화관련 설비투자는 주로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양국 모두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상승추세를 보여옴

·장기불황기간 중의 투자부진으로 설비노후화가 심화된 일본기업들의 기존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투자의 비중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전산업 유지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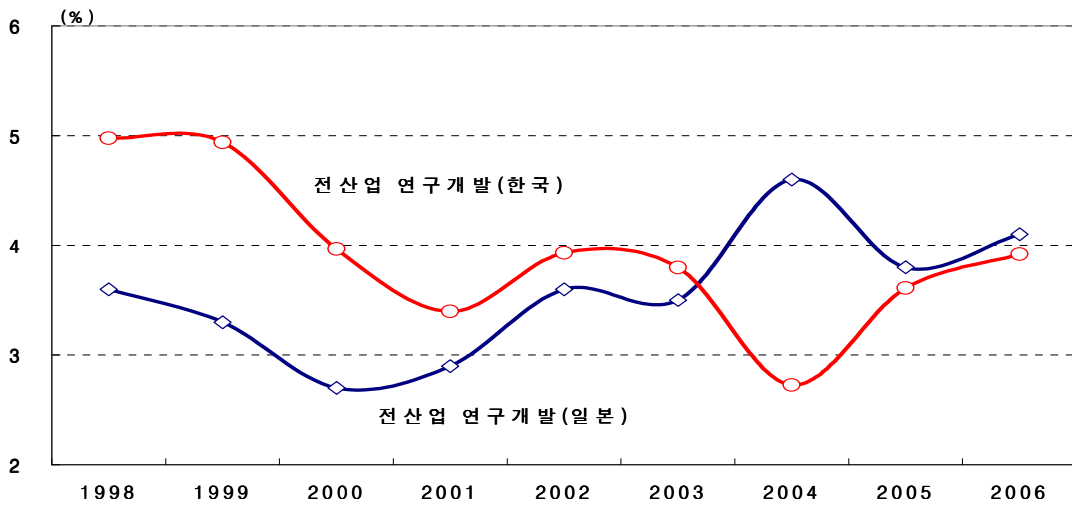


-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2000년 이후 일본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한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답보상태에 머무름

·2005/2006년 중 연구개발투자 금액의 증가율에 있어서는 한국이 제조업 19.0%, 비제조업 2.1%를 나타낸 반면 일본은 제조업 23.3%, 비제조업 11.1%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해당 관련산업의 장기경쟁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설비투자의 유발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요함

< 전산업 연구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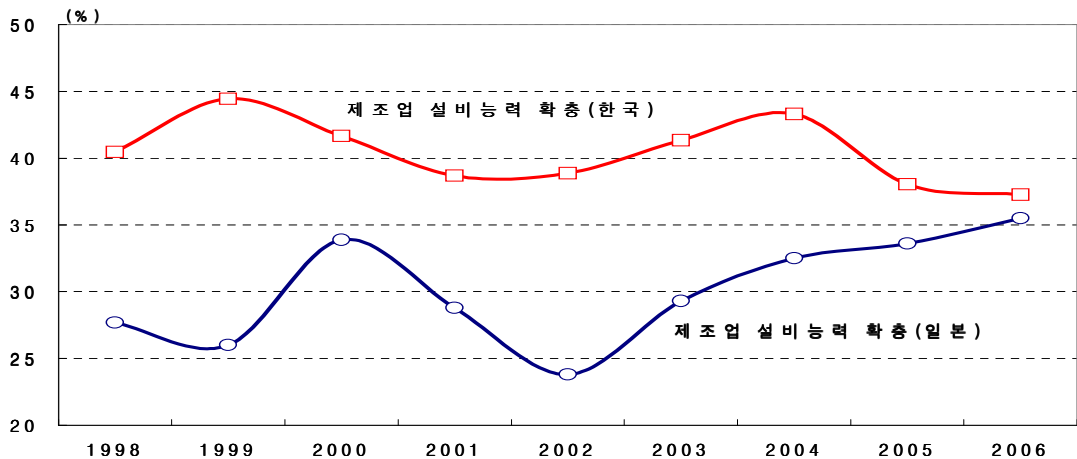


○ 제조업 부문

- 제조업의 경우 설비능력 확대 투자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전반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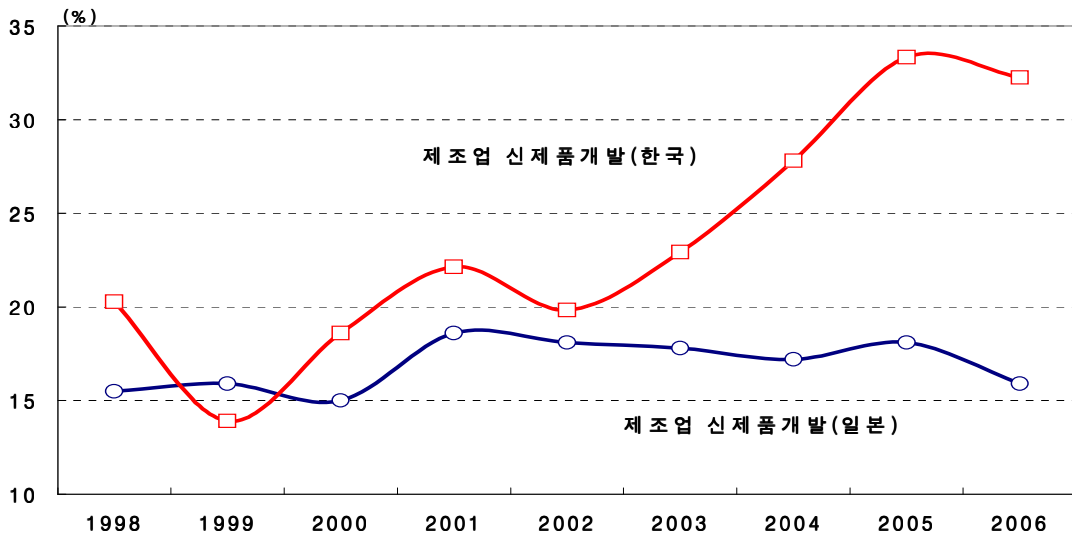
- 일본의 경우 2003년 이후 경기회복에 힘입어 기대성장률이 상승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커져 제조업 부문 설비능력 투자 비중이 증가
- 반면 철강, 석유정제업 등 장치산업에서의 설비능력 확대투자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 제조업체들의 설비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설비능력 >



- 전기전자, 자동차 등 가공조립형 산업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신제품 개발 투자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일본은 15~20%대에서 유지
- 외환위기 이후 국내 제조업체들의 설비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의 비중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자,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신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함
- 반면 일본 가공조립형 제조업체들의 투자비중이 20~25%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데에 기인하여 전체 제조업체들의 신제품 및 제품고도화 투자의 비중은 15~20%대에서 안정화 되는 모습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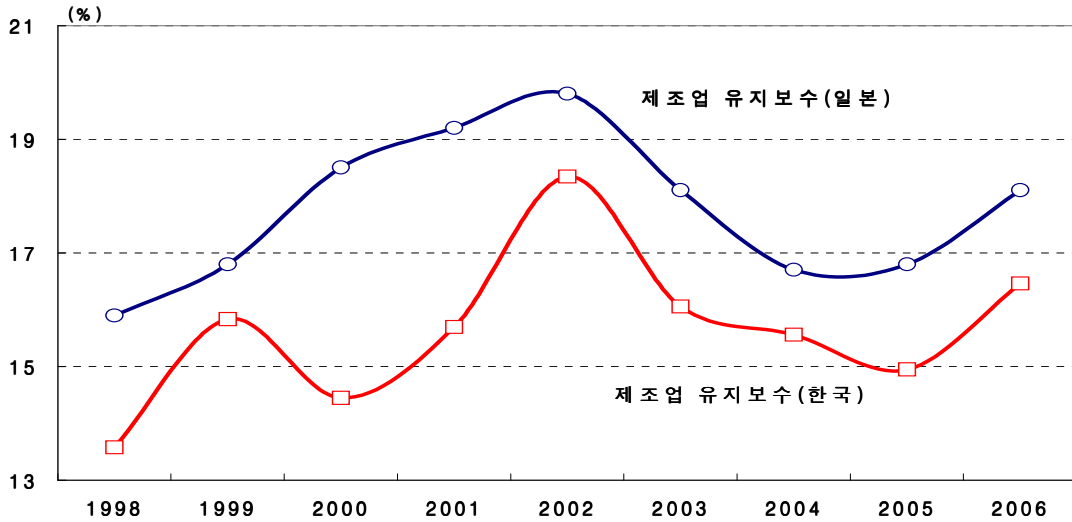
< 제조업 신제품 개발 >



-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형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설비의 유지보수 투자 비중이 양국 모두 2002년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 반전
-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형 산업의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 비중이 여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이는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
- 유지보수와 관련된 설비투자에서는 장기간 설비노후화로 일본기업들의 투자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국내 제조업 부문의 경우 설비의 유지보수 투자 비중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통하여 급격히 증가한 후 하락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기계 및 장비(22.3%), 조선(23.0%) 등의 업종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조사됨



< 제조업 유지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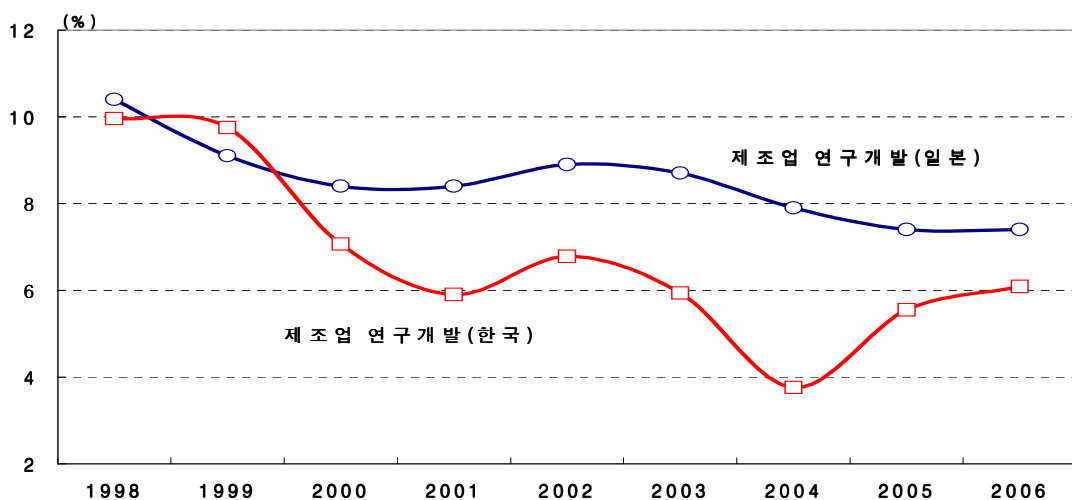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일본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온 반면 한국기업들은 보수적인 투자성향의 확대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듦

·최근 들어서는 양국 모두 경기회복에 힘입어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상승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기복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이는 연구개발부문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임

< 제조업 연구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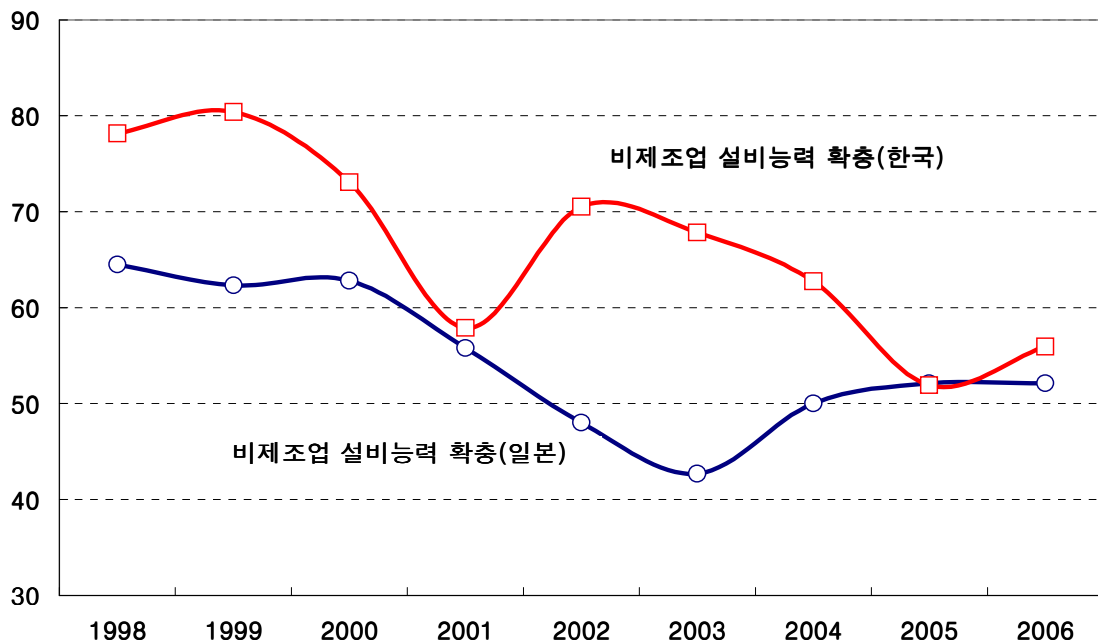


○ 비제조업 부문

- 비제조업부문 설비능력의 확충을 위한 투자는 내수부문의 경기동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비제조업부문 설비투자의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음

- 국내 비제조업체들의 설비능력 확충 투자는 2001~2002년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친 기간과 최근을 제외하고는 하락추세를 나타내었으며
- 일본의 경우에도 경기회복이 본격화된 2003년 이후로 설비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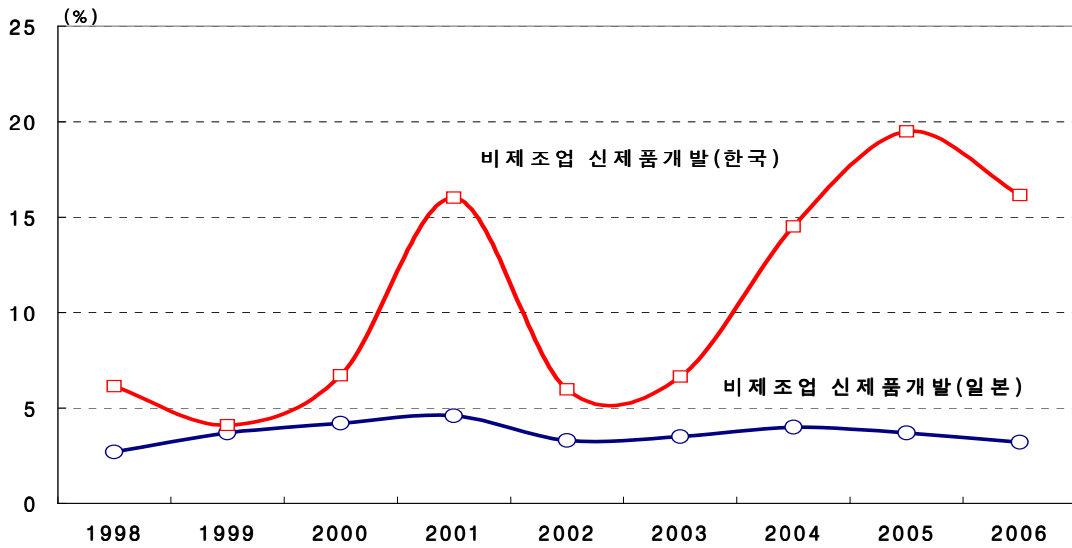
< 비제조업 설비능력 >



- 신제품개발과 관련된 설비투자의 비중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15~20%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일본은 외환위기 이후 줄곧 5%내에 머무름

- 비제조업종 중 신제품개발에 적극적인 업종은 한국의 경우 통신업과 건설업을 들 수 있으며, 일본은 통신·정보업과 서비스업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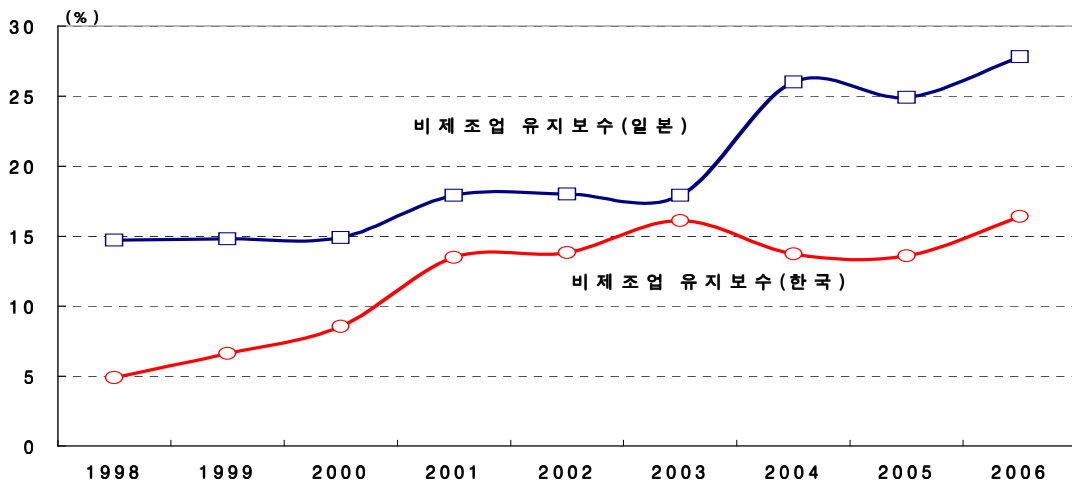
< 비제조업 신제품개발 >



- 2003년 일본 국내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비제조업부문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설비투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15%대에서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기존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는 설비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이어 비제조업 부문 투자동기별 비중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 . 일본에서는 전력·가스업(2006년 현재 37.1%), 운수업(34.9%), 서비스업(27.1%) 등의 업종에서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 . 한국에서는 음식·숙박업(31.9%), 육상운송업(21.1%), 전기가스 및 증기업(20.8%), 건설업(16.4%) 등 업종에서의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비제조업 유지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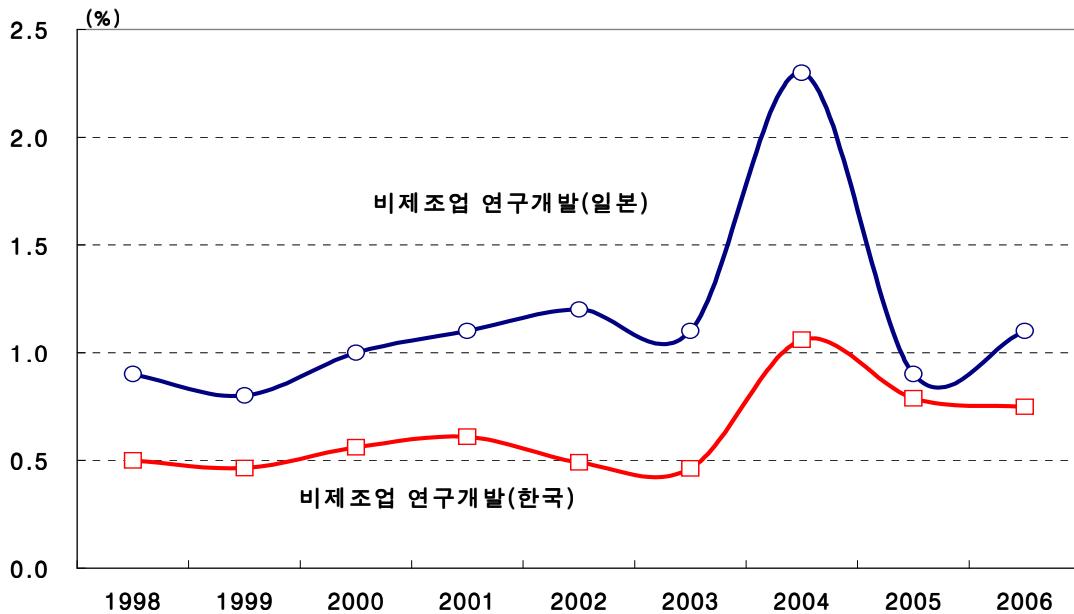


- 비제조업부문의 노동집약적인 성격상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은 제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일본에서는 통신·정보업(2006년 현재 9.0%), 건설업(7.3%), 서비스업(4.3%) 등의 업종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통신업(2.0%), 전기가스 및 증기업(0.5%), 건설업(0.5%) 등의 업종에서 작으나마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비제조업 연구개발 >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5월 수출 경기 호조 지속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9% 증가한 312.5억 달러, 수입은 13.6% 증가한 297.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4.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품목별 수출은 철강 (21.6% 증가), 자동차 (20.0%) 등이 호조를 나타낸 반면, 반도체, 석유 제품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지역별 수출은 對 중국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5.9% 증가하고, 對 미국 수출이 24.9% 증가한 반면, 일본에 대한 수출은 원/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3.5% 증가하는데 그침
- 한편 수입은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여 원자재 수입 증가율이 10.0%에 그친 반면, 설비투자과 소비 회복의 영향으로 자본재와 소비재가 각각 21.3% 및 23.9% 증가함
- 향후 중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수출 제품에 세계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전체 수출 경기는 완만한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4	4월	5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6.3(1.0)	5.1(0.8)	4.8(1.2)	4.0(0.9)	4.0(0.9)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7.1	4.9	-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11.3	15.6	-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26.3	48.9	-
		수출	12.0	14.4	10.6	16.9	16.3	13.8	14.9	17.1	<b>11.9</b>
공급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3.3	6.7	-	
	취업자수 (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84	2,352	-	
	실업률 (%)	3.7	3.5	3.9	3.4	3.3	3.2	3.6	3.4	-	
	수입	16.4	18.4	19.7	20.4	21.1	13.0	13.2	19.8	<b>13.6</b>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166	61	-11	7	4	61	-16	-19	-	
	무역수지 (억\$)	232	161	13	48	25	75	28	6	<b>15</b>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2.0	2.5	<b>2.3</b>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2.3	2.9	<b>3.1</b>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국채 금리 급등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 금리 급등세

- 금리 :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금리 인상과 최근 국채 가격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상승 (국채 10년물 : 4.95→5.13%)
- 환율 : 달러화는 ECB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지표의 호조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강보합세를 보였고, 글로벌 증시의 조정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따른 캐리트레이드 청산 조짐 등으로 엔화에 대해 소폭 약세 시현 (\$/€ : 1.3449→1.3433, ¥/\$ : 122.1→121.0)

○ (국내 금융 시장) 주가와 금리 상승

- 주가 :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세에 가세하면서 주중 1,753p까지 상승한 후,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 및 미국 증시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전주말대 소폭 상승 (1,716.2→1,727.3)
- 금리 : 금통위의 콜금리 목표 수준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및 시중 과잉유동성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대되면서 전주말 대비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5.15→5.28%)
- 환율 : 주초에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926.8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물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반전하여 전주말 대비 소폭 상승 (928.4→931.0)

○ (전망)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경계감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정 확대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007		
		4/4	1/4	2/4	3/4	4/4	1/4	6.1.	6.8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452.5	1,716.2	1,727.3
	국고채3년(%)	5.08	4.93	4.92	4.57	4.92	4.76	5.15	5.28
	원/달러	1,011.6	971.6	948.9	946.2	929.8	940.9	928.4	931.0
해외	DOW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3,449	13,267
	Nikkei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7,959	18,053
	미국채10년(%)	4.39	4.85	5.14	4.63	4.70	4.57	4.95	5.13
	일국채10년(%)	1.48	1.78	1.93	1.68	1.69	1.60	1.78	1.87
	달러/유로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354	1.3449	1.3433
	엔/달러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17.83	122.08	121.0
	두바이(\$/배럴)	53.19	59.16	67.17	57.33	56.71	63.12	63.75	65.72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6.7) 기준